

1. 벤담 : 공리주의 - 최대 행복(=쾌락)의 원리 가. 도덕적 고려의 기준: [쾌고 감수 능력] : 인간을 포함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	2. 싱어 : 『동물 해방론』, []적 관점 -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의 '복지'를 강조함 가.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 : 인간과 동일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달리 차별하는 태도를 '[]'라고 비판 - 평등은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모든 이익 관심을 갖는 존재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- [①] 동물사육실태와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 반대[인정]: 동물에게 작은 고통, 인간에게 큰 이득 -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 나.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함 but) 동일한 [②](=처우)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다. [③]: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
1. 칸트 (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라)  임마누엘 칸트 1724~1804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대표 저서 [순수이성비판], [실천이성비판] 의무론적 윤리, 인간중심주의	3. 칸트 : 인간중심주의적 관점 -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[의무]를 지니지 않는다. -인간은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. -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을 대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칠어지기 때문이다. -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[]도덕 의무에 불과하다. ※동물 자체에 대한 [직접적인]고 보지만,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간 자신의 [④]저하를 초래하므로 [간접적]이라고 보았다.
	“늙은 말이나 개의 오랜 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(마치 그것들이 집안의 구성원인 것처럼)은 인간이 동물과 관련하여 가지는 간접적 의무에 속한다.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 그것은 언제나 []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.”
1. 인간 중심주의 (Anthropocentrism)  핵심: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. 자연은 수단.  칸트: 간접적 의무 (동물 학대 → 인간 도덕성 훼손) 2. 동물해방, 동물권리 (Pathocentrism / Animal Rights)  핵심: 쾌고 감수 능력 = 배려 기준. 종 차별주의 반대.  레간: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권리 보유. 수단 이용 금지. 3. 생명 중심주의 (Biocentrism)  핵심: 슈바이처: 생명 경의. 생명 유지=선, 파괴=악.  테일러: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. 생태적 평등. 4. 생태 중심주의 (Ecocentrism)  핵심: 레오폴드: 대지 윤리. 공동체의 온전함, 안정성, 아름다움 기여 = 좋음. 	4. 생태 중심주의 : 레오폴드 -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[⑤] -자연(인간, 동물, 식물, 무생물)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됨 -개별 생명체보다는 []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우선시 -전일론적 관점 개체보다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명 공동체 [⑥]에 관심
-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[온전성, 안정성, 의]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. -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. -[]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, 물, 식물, 동물,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.	

※순서대로 드래그앤 드랍하세요: 의무는없다 대지윤리 아름다움 생명공동체 예외 직접적
보존 공리주의 의무위반 인간자신 종차별주의 간접적